양림~광주천~문화전당 역사문화길 만들고 근대역사관 건립

1000억 들여 예술인촌 만들고
양림산·사직산 일대에
선교·순교기념관 등 건립
광주에 '제2 예루살렘' 조성

'양림동산의 꿈' 어떤 사업 추진하나

광주시 남구 양림동은 개화기 신(新)문화 유입과 보급의 근원지이자 광주·호남 근대 역사문화 보고(寶庫)다.

기독교 선교기념 유적과 시비(詩碑), 이장우·최승효 가옥 등 전통건축물들이 곳곳에 자리하며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레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다. 또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 선생과 차이코프스키 4대 제자로 러시아에서 이름을 떨친 작곡가 정추, 다형 김현승 시인, 소설가 문순태, 화가 배동신, 황영성, 우제길, 한희원, 정운학 등 음악·문학·미술을 주름잡는 인물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사)양림동산의 꿈'은 양림동을 비롯한 근대 역사문화자원, 기독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광주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단체다.

최근 수립한 예산 1조2800억원 규모 '경제문화선교 관광자원화 조성계획(안)' 내용을 통해 어떻게 꿈을 실현시킬지 살펴본다.

◇**기반시설확충**=양림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2018~2019년 2년 계획으로, 부지 보상비를 포함해 약 2000억원을 책정했다. 양림동~광주천~문화전당을 잇는 길을 만들고 하수도 정비,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삶도 윤택하게 할 전망이다. 특히 양림동 미관을 해치던 전신주를 이설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깃줄 정리가 눈에 띈다.

◇**문화시설확충**=지역 문화자원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2022년까지 3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근대역사관'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약 6600㎡(2000평) 규모다.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를 선보일 계획으로, 무인 전시해설 등 최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지역에서 약 20년간 거주하며 기독교 유물을 약 1만3000점을 수집한 소장가도 참여한다. 이 수집가는 유물을 역사관에 기탁해, 일반 대중들과 공유할 생각으로 알려졌다.

'예술인촌조성사업'(1000억원·2018~2025)은 양림동 출신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공연장 등을 갖춘다. 독립운동과 나환자 치료에 일생을 바친 최흥종 목사, 양림동 언덕에서 무등산을 바라보며 굵직한 시인으로 성장한 다형 김현승 기념관 등을 만든다. 또 미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비롯해 음악가들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야외극장(음악당) 등을 조성한다.

2020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할 '문화재 개방사업'은 우일선선교사사택, 커티스메모리얼홀 등에서 추진된다. 서서평 기념관, 제중원 역사관, 정율성 생가, 사립학교 기념관을 설립하고 각종 유물을 전시한다.

◇**광주의 예루살렘 조성**=양림동이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기독 선교 유산을 적극 활용하는 3개 계획이다.

'기독교성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2025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양림산, 사직산 일대에 선교기념관(선교사묘역)과 순교기념관(사직공원 언덕)을 만든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묘 44기가 자리한 점을 강조해, 44명 선교사의 유년시절부터 일대기를 집중 조명한다.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곳으로, 유가족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순교기념관은 국내 기독교 최초 여성 순교자 신안 출신 문준경 전도사를 비롯해 '나환자들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혼이 서린 여수 애양원, 영광 6·25 순교자들을 다룬다.

'세계 제 2의 예루살렘 성지화'도 눈에 띈다. 2025년까지 예산 3000억원을 투입, '통곡의 벽' 등 예루살렘 성지 축소모형을 만들어 순례인들의 발길을 이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서쪽 성벽으로,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 장소다. 로마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아픔이 서려 있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2018년부터 지속 추진되는 '기독선교루트개발사업'(500억원)은 선교기념기·유진벨선교기념관·선교기념과·순교기념관 등 각 선교유적지들을 연결하고, 외지인들이 묶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찾아오는 광주**='관광객 1000만 유치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사)양림동산의 꿈'측은 연간 1000만명이 방문했을 때 1일 방문객은 약 2만명으로 추정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방문 자동차는 5000대 수준이다. 광주천변 일대에 약 3000억원을 투입, 자동차 수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과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 숲, 꽃길 조성, 체육공원, 쉼터 등 여가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변론 끝나자 '서면전쟁'… 더 뜨거운 장외 탄핵공방

국회측 보충의견서 2건, 언론보도 자료 4건 헌재 제출
대통령측 "의결 과정 부적법 탄핵소추 자체 부당" 의견
촛불·태극기 집회 참석 여론전도…재판관들 휴일 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56일 동안 법정공방을 벌인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변론 종결 후에도 치열한 서면공방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한 치의 양보 없는 '서면전쟁'이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1일 "변론 종결 후 첫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국회 소추위원단이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의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의혹과 관련해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의 설립과 기금운영 실태 등을 담은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 일각에선 '헌재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만큼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8인 체제 재판부가 선고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언론보도 기사 수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비록 증거에 이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는 판단에서다. 또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한 관계자는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사유에 대해 여러 해명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서면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국가 중대사가 정해지는 선고를 앞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이 마무리돼 더는 새로운 증거나 서면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중 일부는 1일 열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집회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할 경우 불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소추위원단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도 1일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관들은 3·1절인 1일 헌재와 자택 등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의 결론 도출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밀착 경호를 받으며 가장 먼저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 권한대행은 휴일에는 주로 오후에 나왔지만, 이날은 평소 휴일보다 더 일찍 나와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줬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 심리를 지휘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하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 고충 속에서도 공정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오후에 헌재로 나왔으며 또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에서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주장을 꼼꼼히 살피며 기록 검토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은 휴일이어서 재판관회의(평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라는 중대 결정을 앞둔 헌재는 이날 한층 긴장감이 감돌았다. 3·1절을 맞아 오전부터 헌재 정문에는 탄핵 반대 시위자들이 모여들었고, 경찰 병력도 대거 배치됐다. /연합뉴스

혁명가 마라는 왜 욕조에서 죽어갔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177) 암살

자크 루이 다비드(1748~1825)는 프랑스 파리 혁명 시기에 '민중의 친구'라는 신문을 발간하며 혁명을 선동하다 자신의 욕실에서 암살당한 장 폴 마라(1743~1793)를 그린다. 미술사학자 샤이먼 샤마(컬럼비아대 교수)는 저서 '파워 오브 아트'에서 다비드가 그린 '마라의 죽음'(1793년 작)은 '거대한 거짓의 역사 한 편'이라고 잘라 말한다.

과학자이자 의사, 열기구 연구가이기도 했던 마라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나자 왕당파 뿐 아니라 같은 공화주의자 중에서도 급진적이지 않은 사람은 모두 배신자로 몰았고 단두대에 설 처형자들의 명단을 늘려 나간 인물. 온건한 혁명주의자였던 시골 처녀 샬롯 코르테(1768~1793)는 마라를 '고귀한 공화국의 자유를 짓밟은 악한'으로 여겨 암살을 감행한다.

고질적인 피부 건선을 앓았던 마라는 더위가 심해지면 식초에 적신 붕대를 이마에 감고 탕에 들어가 긴 나무 상자를 책상 삼아 업무를 보곤 했다. "공화국의 적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하려 한다며 마라를 만난 샬롯은 품안의 칼을 꺼내 마라의 쇄골을 찔렀다.

다비드 '마라의 죽음'(1793년 작)

마라의 암살 소식을 들은 다비드는 작품 '마라의 죽음'을 통해 슬픔을 위로하고 혁명의 수난을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그림 속 마라의 손에 쥐어진 샬롯의 편지는 "자선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으로 바뀌어 묘사됐고, 마라는 배신자들의 사냥에 혈안이 되어 이들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에서 '혁명의 순교자'로 미화된다.

앵그르와 더불어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화가로 꼽히는 다비드는 그 자신 스스로가 권력에 기댄 정치적인 화가였다. 급진적인 혁명당권이었던 자코뱅당파였고 자코뱅당을 이끌었던 로베스 피에르가 실각하자 발빠르게 나폴레옹을 열렬히 추종하면서 정치선전물인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과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을 그렸다. 나폴레옹 몰락 후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했고, 작품 '마라의 죽음'도 함께 프랑스에서 추방되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